

제3회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포럼

2022.12.13.(화) 14:00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 3회 노원문화공동체협의회 포럼

행사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05	개회	
14:05 ~ 14:15	제 1 주제 〈도서관 문화를 그리다〉 -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의 2년여간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윤정환
14:15 ~ 14:25	제 2 주제 〈일상과 비일상의 만남, 변화의 시작〉 - 성북구립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이진우
14:25 ~ 14:35	제 3 주제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 도서관과 사서와 (공연, 문화)기획인, 그리고 행정인	(발제)장석류
14:35 ~14:45	휴식	
14:45 ~ 15:15	토론 〈문화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재단·도서관 발전 방향〉	(토론) 한승희, 윤정환 이진우, 장석류 오지은, 윤금노
15:15 ~ 15:25	질의응답	(좌장)한승희
15:25 ~ 15:30	폐회	

목차

제 1 주제 〈도서관 문화를 그리다〉 발제문(PPT) : 윤정환	04
제 2 주제 〈일상과 비일상의 만남, 변화의 시작〉 발제문(PPT) : 이진우	12
제 3 주제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발제문(PPT) : 장석류	22

도서관, 문화를 그린다.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의 2년의 사례 중심으로...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정책실 윤정환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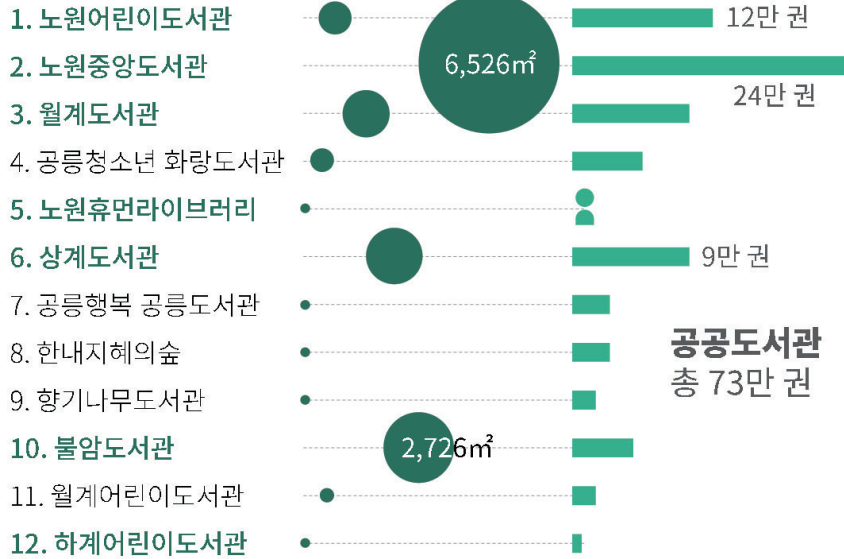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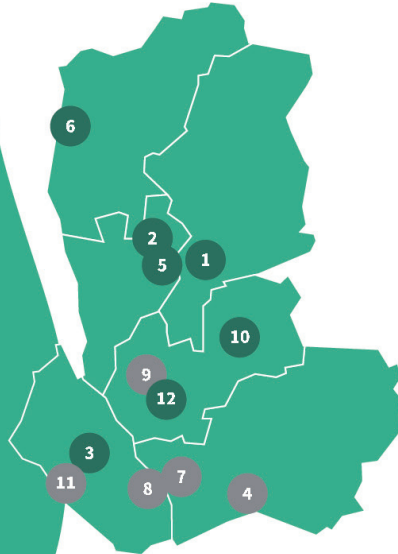
사전적 정의

1.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와 닮게 선이나 색으로 나타낸다.
2. 생각, 현상 따위를 말이나 글, 음악 등으로 나타낸다.
3. 어떤 모양을 일정하게 나타내거나 어떤 표정을 짓다.
4. 상상하거나 회상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

어디서나

노원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얼마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도서관 회원

도서관 회원가입자
약 38만 명



주요 이용자
약 10만 명

한 해 동안

노원구 도서관 143만 권

공공도서관 109만 권

작은도서관 34만 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도서관 공간이용 등

연간 약 260~300만 명 이용

우리는! 도서관의 주요 사업

비전 - 삶을 함께하는 도서관

3개의 정책, 9개의 단위, 17개의 사업

정보

일상과 삶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시민교육, 자료제공, 생애주기 사업, 정보제공

문화

더불어 읽는 문화 플랫폼

노원구 한 책 읽기, 북페스티벌, 리딩인, 독서 공동체, 일상문화

미래

성장하는 도서관

규제 개선, 서비스 개발, 연구, 행정 고도화

시작. 2020.12. 노원문화재단 노원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문화와 도서관의 이해

행정

문화재단의 행정 업무 통합 과정

협력 사례의 시작

논의

기획

그릇

도서관이기에 할 수 있는 것

도서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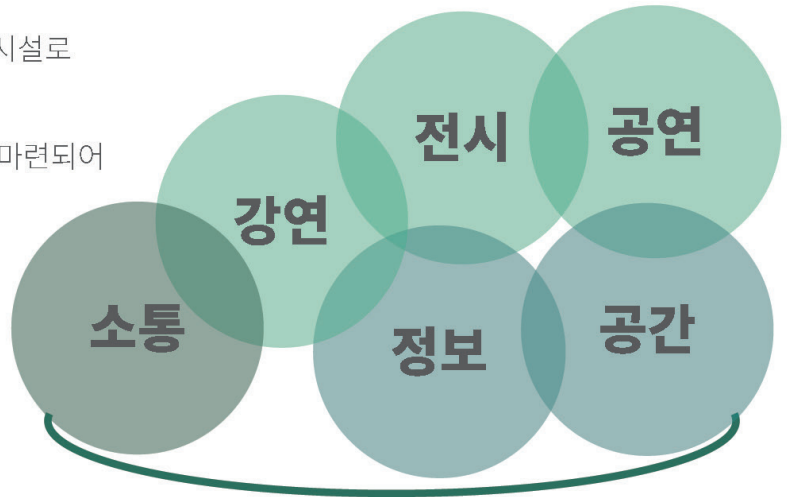
모든 주제의 정보와

시민이 함께 만나는 공간이 마련되어

강연, 전시, 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유연한 공간



시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의 이야기가

문화거점으로

문화의 이야기가

도서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연계, 협력, 논의

하나 둘 함께 이야기 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의 그림



전문 분야

공연 연출, 기획 구성
음향 장비
다목적 공간 기획과 인프라 관련 정보
기획 시 문학, 관련 자료, 연계 도서 정보 활용

홍보 분야



노원구립도서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도서관, 문화거점(사업) 안내
범주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계
경계를 허물며 긍정적 자극 유도
정량적 실적 확보

▶ 보도자료, 노원아띠,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함께 만들어가는 연계, 협력, 논의

공동 기획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문학적 콘텐츠를 몰입 있는 기획공연과 연계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

▶ 21년 3회, 22년 6회 등 2천5백여명의 참여
아주 높은 만족도



함께 만들어가는 연계, 협력, 논의

공동 기획 (채경화 살롱)

한 책 읽기를 영화로 풀어내는
유쾌한 변화
시각 정보(읽기, 보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잇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도

- ▶ 22년 2편의 영화, 1권의 책
노원구 내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323명의 참여



남재익의 여름밤



'이웃' 안의 주 노르



'출대순례' 도서 노르

도서관의 이야기가 문화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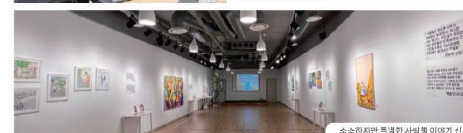
기획 전시 (휴먼라이브러리, 상계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기록과 영상, 작품을 통해 소개하고
가치를 보여주는 시도
이야기에 기획과 연출
공간을 더해 가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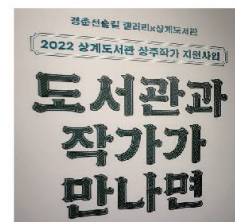
- ▶ [휴먼] 소소하지만 특별한 사람책 이야기(21.12.)
[상계] 도서관과 작가가 만나면(22.11.)



사람책 이야기 기획책



소소하지만 특별한 사람책 이야기 신



도서관과 작가가 만나면

문화의 이야기가 도서관으로

콘텐츠 연계 (도.도.아, 정보제공, 팝업 연계 등)

[도대체 도서관이야? 갤러리/공연장이야?]

문화 콘텐츠와 도서관 강연, 자료를 연계
영화전시, 버스킹 공연 등
도서관의 복합 문화 공간 변화 시도

▶ 5개 도서관 등 전시/공연 5만여명 관람

[어도, 불암] 팝업 전시, 정보제공

어린이극장 기획공연의 오브제를
어린이도서관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연간 공연과 관련 정보를
불암도서관에서 다양한 큐레이션으로



어린이도서관, 공연의 강아지 편지



노원중앙도서관, 개신행시 버스킹



불암도서관, 공연연계 정보서비스

시선 작은 발걸음 이후에 대한 고민

더 많은 시민에 알리고,

함께 이야기 하길 바라는 마음

도서관, 문화를 그린다.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의 2년의 사례 중심으로...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정책실 윤정환

- **성북구립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 **서울시에서 5번째 설립(2012.9)**
서울시 문화재단 최초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 ▶ **2014.1월까지 문화사업본부 산하 조직**
2014.2월에 도서관본부 별도 설립



재단의 위상과 정체성 정립 시기

- ▶ 재단 설립에 따른 대내외 갈등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구민회관 등 다양한 성격의 문화시설 운영
축제 등 구 주최 문화예술활동의 수행
- ▶ 재단 소속으로서 각 시설의 정체성 강조 : 교육, 명칭 정립 등
재단 위상 강화를 위한 성과 : 시설의 고유활동보다 재단의 주요사업에 집중
- ▶ 부족한 이해와 경험, 낯선 문화 → 경계와 갈등

‘지역, 삶’ - 공통분모, 변화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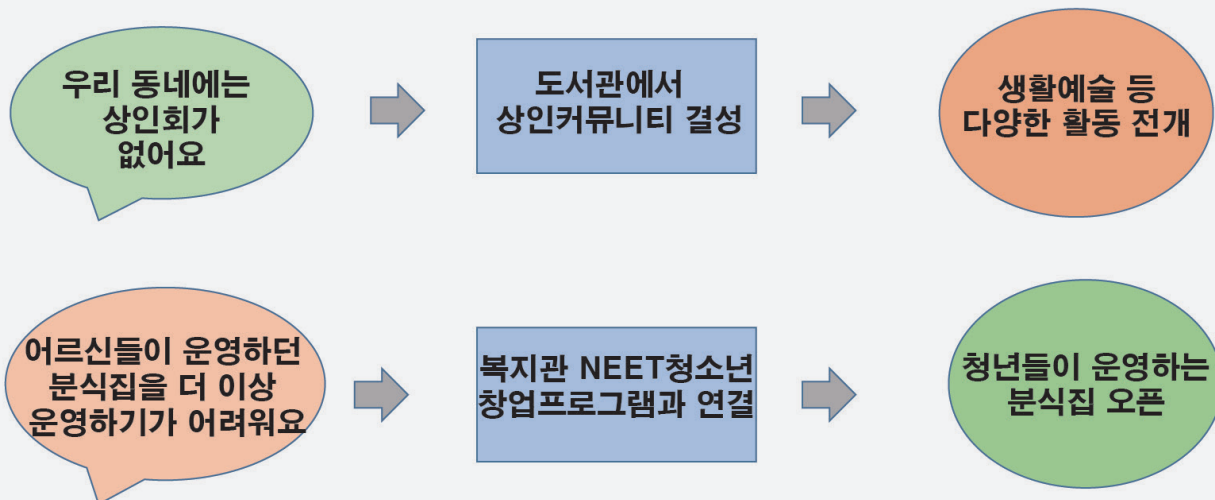
- ▶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 영향을 받기 시작
도서관기획팀, 지역문화팀, 문화정책팀...
시설, 사업, 정책을 넘나드는 부서간 협력 구조 → 협업의 경험 축적
- ▶ 자치, 협치, 풀뿌리민주주의 확산 → 지역, 개인의 삶이 중요
도서관 내부의 성찰 → 직원전체회의 시작(2015) → 새로운 방향 전환
책에서 사람(삶)으로, 도서관간 협력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으로..
- ▶ 지역과 삶에서부터 시작 → 공통분모 → 낯선 만남이 배제가 아닌 자극으로
도서관의 일상과 문화예술의 비일상의 만남 → 새로운 변화의 계기

지역으로 나간 도서관, 변화를 펼치다

- ▶ 지역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
지역의 현안과 이슈, 사람들의 고민과 삶을 들여다보기
2017.1~3월까지 총 214개 단체 526명 인터뷰
- ▶ 도서관별 마을네트워크 네:온 구축
교사, 상인, 통장, 예술인, 복지사, 독서회원 등 참여
매월 정례회의, 각자의 고민과 지역이슈 등 공유
22년 도서관별 10~40명, 총 132개 단체 281명 참여
- ▶ 수서,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등 도서관 운영의 시작점
지역을 기반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토대



사례 : 네온을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



- ▶ 지역, 삶의 관점에서는 분야로 나뉘지 않음 → 구분이 아닌 연결과 협력, 융합의 필요

사례 : 도서관 공론장 마을in수다

시흥문화재단 · GDM넷 산하 Sandoll 호모로

4eb 생파 생동 실천문화재단

202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기후위기는
공정하지 않다.

#탄소예산 #기후악당 국가 #2050탄소중립 #정의를 위한 전환 #사회적불평등 #지급당장 기후정의

2021. 11. 30.(화) 오후4시
성북정보도서관 2층 세미나실

사회자 이선임(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전문위원 이은미(환경정의 사무처장,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202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2017년 3월부터 성북정보도서관은 통행권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여러 기관,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네트워크 명칭을 '하하살롱'으로 정하고 한달에 한번 만나서 서로의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와 마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있고 가지고 함께 공부할 활동을 하고자 하는, 2인도 참여 하고 자료도 찾아보며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달마다 '하하살롱' 모임에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기후위기는 공정하지 않다'로 연결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마을in수다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하하살롱 정기모임>

- 4월 22(금) 기후위기와 관련된 가사들 함께 읽고 보고 토론
- 5월 7(금) 한강부 정박장상 함께 보고 토론 탄소중립 2050 소개
- 6월 4(금) 비전, 확산과 확산에 대한 질문을 보고 탄소중립 2050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제안
- 7월 2(금) 탄소중립 2050에 관한 자료를 보고 토론
- 8월 6(금) 전문가 초청으로 대교대교자 초청으로 교수의 '파란하늘' 반전지구, 김진 정현
- 9월 10(금) IPCC 6차 보고서, 대신 기후위기 공약 등에 대해 산본가 사들 보자 이야기
- 10월 7(금) 사회의 각성을 내거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꿔가도록 노력해 (대한상공회의소)
- 11월 1(월) 202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주제 확정

"개인의 실천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전 지구적인 문제에 개인의 노력만 중요하진 사회 같아요. 최박박만 퍼지는 것 같고..."

"정부나 수많은 정책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계획이 지켜지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차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육식 때문인지 왜론스럽습니다. 종업(산업)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스러워요."

"환경문제는 개인의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만나고 모이면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동네에서 이렇듯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좋고, 무엇이든 할이 가능해 중요하게 안고 생각해요."

-하하살롱 정기모임 중에서-



마을in수다 길잡이 강연

'하하살롱'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나마 쓰레기 문제, 탄소중립 2050, 비전과 책식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게 아니다 보니 한계도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기후위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성북정보도서관 마을네트워크 하하살롱 전문가 초청강연>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의 '파란하늘' 발간지구
2021. 8. 6.(금) 19:30 ~ 21:30

"개인이 책임져서 해결할 수 는 없지만, 개개인이 가치를 향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 노력들이 연대를 통해 힘을 발휘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in수다 사전특강>
기후위기에 맞서는 기후정의의 운동
2021. 11. 24.(수) 19:30 ~ 21:00

'기후정의' (한티재, 2021)의 저자 한재기 기후정의연구활동가와 함께 마을in수다 사전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진행순서 "기후위기는 공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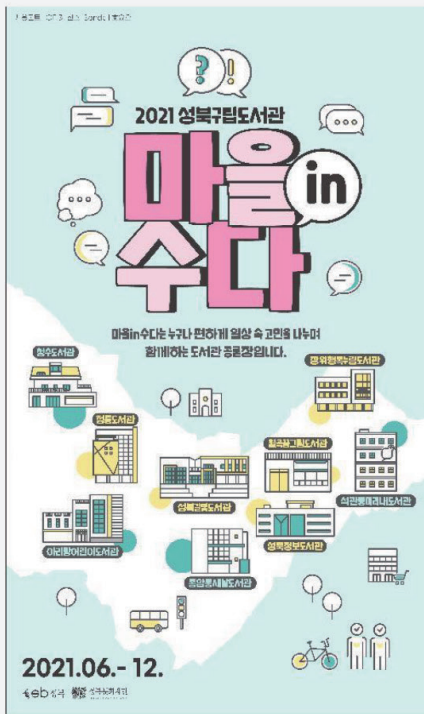
진행 이선임(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전문 이은미(환경정의 사무처장,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박필순(지역주민, 상월곡실버복지센터 그린리더), 김윤정(지역주민, 파동이활동가)

202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순서

16:00 ~ 16:10	10'	인사말/사회자, 전문위원 소개/영상보기
16:10 ~ 16:20	10'	발제
16:20 ~ 17:30	70'	자유 토론
17:30 ~ 17:45	15'	덧붙이는 말

마을in수다 '기후위기는 공정하지 않다' 참고자료

책제목	저자	출판사	연도
1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한재기 지음	한티재	2021
2 기후정의선언: 우리는 살때갈 권리 없습니다	유리모두의일지음, 이세진 옮김	마농지	2020
3 미세먼지클리어 : 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기후 정의 행동	강영구, 김상철, 배보람, 이낙준, 이유진 지음	아르테(arte)	2019
4 저탄소와 음모: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가우홍영 지음 : 허유영 옮김	라이온북스	2011
5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음	이매진	2016
6 법상의 전환: 기후변화와 농업, 협동조합의 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모심과실명연구소	한티재	2013
7 탄소민주주의: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티마시미첼지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일, 김원우, 조보영, 유예지 옮김	생각비행	2017
8 환경을 해치는 25가지 미산: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주의자들의 어떤 믿음	대니얼B. 보트킨지음, 박경선 옮김	개마고원	2020
9 삼자편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어린 사람들에게 적은 농부들이 들려준 이야기	정청라 지음, 보라, 최선현, 김미수, 최기영, 이하연, 김창영, 배이슬, 조	니온기억	2021
10 탄소사회의 종말	조효제 지음	21세기북스	2021
영상 제목	제작	연도	
1 탄소예산? 기후정의? 탈성장? 한규에 정리한다!	기후정의 비상행동	2020	
2 기후운동 대신 기후시민이 되어주세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세바시	2021	
3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우리	환경정의	2021	
4 기후위기는 들어봤는데 기후정의 그건 뭐죠?	에너지정의행동	2021	
5 부유한 국가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가난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정의'의 문제이다!	사피엔스 스튜디오	2021	
기사&칼럼			
1 [기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 저국의 돌풍과 가난한 이들의 돌풍, 녹색연합, 2020.12.26.			
2 기후정의 운동이란 무엇일까?, 녹색연합, 2010.07.09.			
3 [2020.10]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10.			
4 신진국 주도의 '녹색전환' ...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한겨레, 2021.08.02.			
5 환경 내 텃 땅... '과거' 캐논은 개도국 vs '현재' 따지는 선진국 [에틸드 류·기후정의의 역설], 2021.08.06.			
6 [칼럼] 국제협력 없이 기후변화 해결도 있다. KDI경제정보센터, 2021.09.			
7 미래 오디세이[미래엔지, 기후변화, 인류세, 경향신문, 2018.10.24			
관련 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2 교통 - 에너지 - 환경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청년, 이웃 발견!

관계, 왜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가?

우리, 도시 재생하면 잘 살수 있나요?

어떤 노인으로 살 것인가? 선배시민 디지털 시대에서 함께 살아남기

우리 마을 쓰레기 고민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모든 것

따로, 또 같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기후 위기는 공정하지 않다

인간과 로봇의 공존, 미래사회

일과 삶의 균형은 가능한가?

착한 소비는 가능한가?

슬기로운 노년 생활

10년 후 석관동(Feat 문화도시)

▶ 일상의 고민과 이슈 → 분야로 나뉘지 않음. 연결과 협력의 필요

협력 사례 : 다시 만난 세대 – 청년

- ▶ 2021년 정릉도서관 마을in수다 주제 ‘청년 이웃 발견’
성북청년시민회,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정도네, 정말기록당, 마을온예술 협동조합, 정말넷, 공간 민들레, 청공만모 등의 단체와 정릉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
- ▶ 청년들과 기성세대들간의 소통,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청년세대가 지역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마중물로서 도서관 역할 발견
- ▶ 정릉도서관 네트워크 네:온(정도네)에 청년들 참여 (10개 단체 10명으로 구성)
청년시민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보나깅통카페, 정든마을, 동아리회원, 정릉 주민 등
- ▶ 정도네 서로배움터, 도서관청년거점 TF, 성북청년시민모꼬지 기획단 등 구성
청년 의제를 중심으로 정도네 운영

협력 사례 : 다시 만난 세대 – 청년

- ▶ 2022년 정도네 서로배움터(마을의제탐구모임) : ‘내일이 허락되지 않은 청년’
청년의 불안과 삶에 대한 공론장 운영
- ▶ 2022 성북청년시민모꼬지 개최
지역의 청년의제를 도출, 논의, 실행하기 위한
구립도서관 – 청년 기관/단체 거버넌스 운영
- ▶ 성북청년시민회,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성북문화재단(도서관기획팀, 문화예술공작소 합,
정릉도서관, 청년살이발전소, 청년창업실험공간
공업사), 무중력지대 성북, 성북청년공간,
청년공간 길이음



협력 사례 : 다시 만난 세대 – 청년

“예술활동, 예술교육 활동을 쫓 해왔는데, 그 동안 만난 그룹엔 청년은 없었다. 청년은 모집도 힘들고 지속되기도 힘들어 사업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예술교육활동가의 입장에서 청년들은 만날 수 없고,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사라지는 청년 거점들이 하던 역할을 도서관이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도서관을 통해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연결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들도 더 많이 공부할 것이고, 환대의 태도로 청년을 맞이할 것이다”

“청년 의제를 도서관과 함께 하면서, 대상과 의제의 폭이 훨씬 커지고 다양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보다 다양한 삶의 양태와 경험,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협력 사례 : 성북이음프로젝트

- ▶ 문화행사를 포함해 지역 정보를 쉽게 접했으면 하는 주민 요구
지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 성북구에서 아카이빙을 하는 기관, 단체 상당수 → 문화원, 미술관, 민간단체 등 아카이빙 되어 있는 자료의 가치에 비해 이용이 많이 되지 않는 아쉬움
- ▶ 지역자료특화도서관으로 개관한 성북이음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
- ▶ 2021년 성북학컨퍼런스를 계기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하는 정례회의 개최
도서관, 미술관, 성북문화원, 예술단체 등 기록을 생산하고 아카이브 하는 기관, 단체
성북이음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회의체 구성 – 도서관 + 문화원 + 홈페이지 담당 업체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가

한 번에 **검색**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성북구립도서관과 성북마을아카이브의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지역자료를 만나보세요.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마을 아카이브 검색하는 법

통합검색창에 찾고 싶은 검색어를 넣어 검색합니다.

성북구립도서관 통합검색창

통합검색결과

HOME > 자료검색 > 통합검색결과

전체 > **박완서** 검색

* 요청하신 '박완서'에 대한 '소장자료' 검색 결과입니다. 844 건입니다.

분류

☒ 시간 ☒ 인물 ☒ 장소 ☒ 유물 ☒ 개인/단체 발간물 ☒ 작품

☒ 뉴미디어

작성

단행본(775) 연속간행물(0) 지도서(1) 전자자료(18) **성북마을아카이브(56)**

등록일(최근-오래) 10개 검색

[작품]
노인, 최신 영화를 보러 가다

소설가 박완서는 월간 『현대문학』에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에세이를 연재하였다. 본 작품은 연재에 이어 4회에 해당하며, 2010년 파란 박완서 신문집 『꽃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도 수록되었다. 여고시절부터 노인이 된 2008년 현재까지 경험한 국장에 얹힌 기억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담한 어투로 담아냈다.

오른쪽 성북마을아카이브 탭을 클릭하면,
마을아카이브의 아카이브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클릭하면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

노인, 최신 영화를 보러 가다

2010.08.02

작품 > 문학

소설가 박완서는 월간 『현대문학』에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에세이를 연재하였다. 본 작품은 연재에 이어 4회에 해당하며, 2010년 파란 박완서 신문집 『꽃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도 수록되었다. 여고시절부터 노인이 된 2008년 현재까지 경험한 국장에 얹힌 기억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담한 어투로 담아냈다.

문헌물 상선물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도,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처럼 도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 도서관 자료 검색하는 법

성북마을아카이브 소개 기록물 탭 > 아카이브 > 주제기록단 > 성북마을발견 > 소식 > 기록

통합검색

이러저러, 기록물 탭, 기록물 탭, 성북학 연구자료를 통합 검색하는 곳입니다.

박완서 전체 X 검색

* '박완서' (21)로 835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검색 초기화

전체 **이야기거리** 기록물 탭 기록물 건 **성북학 연구자료** **도서**

도서 전체결과 총 775건 더보기 >

내가 읽은 박완서

도서명: 서경로립도서관 [자료실] 1층자료실, 일반 [항구번호: 809.3-김66- [자료명: 대동강(4차지정)]

내가 읽은 박완서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도,
통합검색 시 도서 탭을 클릭하면
성북구립도서관 소장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협력 사례 : 성북이음프로젝트

- ▶ 성북구립도서관 - 성북문화원의 연계 검색시스템은 첫 발걸음 → 확대 예정
정보 생산자로서의 도서관 → 지역의 자료와 정보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 확대
사람 - 자료 - 지역을 연결하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

성북이음도서관
지역자료특화



정릉마을아카이브
정말기록당 북 함께 보기



성북구립미술관
성북도큐멘타



지역, 삶의 관점에서의 공통분모, 함께 협력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

다양성, 자발성, 일상성을 상수로 가진 곳, 도서관
만남, 질문, 변화가 만들어지는 곳

예술의 창의성, 비일상성, 끊임없는 자극

도서관의 일상과 문화예술의 비일상의 만남 → 변화, 시너지
여전히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는 만남과 협력의 경험이 중요. 신뢰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과 실험,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짐

이제는 공동사업이라기보다 구분 없이 우리 사업으로!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ljwlib@subculture.or.kr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 도서관 사서직과 (공연,문화)기획인, 그리고 행정인

예술경영·행정 분야 연구자(Ph.D)겸 교수자

장석류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음

(2017-2020) 노원, 동작, 강동, 관악, 양천, 중랑 등

1972년	2005년	2006-2009년	2014년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도서관법	지역문화진흥법
1968~1979 문화공보부 1972년 10월 유신선언 문화예술 정의 문화시설 정의,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위원회 (서울)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참여정부 교육 및 문화복지 공공성 확대 문화부 신규 과 신설 - 문화예술교육과 - 지역문화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여정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역대표도서관(2009) : 시·도 단위 설립 공공도서관(2009) : 정보문화, 교육센터 역할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	박근혜 정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도시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2019년(노원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진흥법(1972), 문예기금, 문예회관

도서관법 개정(2009) : 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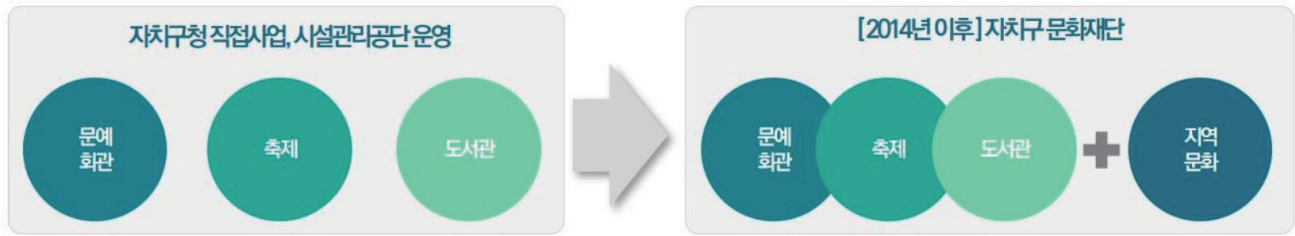
시·군·구청/공단

지역문화재단으로
사업의 통합
:(+ 정책팀)

충돌,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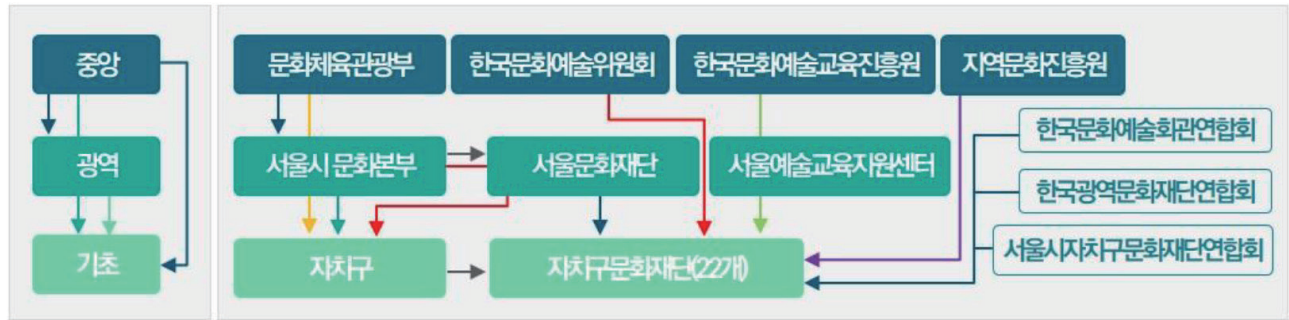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2014)
- 생활문화, 문화도시

지역문화재단의 환경변화



구청 문화사업, 자치구 문화재단 통합 흐름

반대 흐름과 의견도 있음



서울시 문화정책 전달체계 구조도

2019년 노원문화재단 (예술회관+축제+지역문화+도서관) 통합 : 지방분권 시대정신



공연/전시

축제/지역문화/교육

대관

열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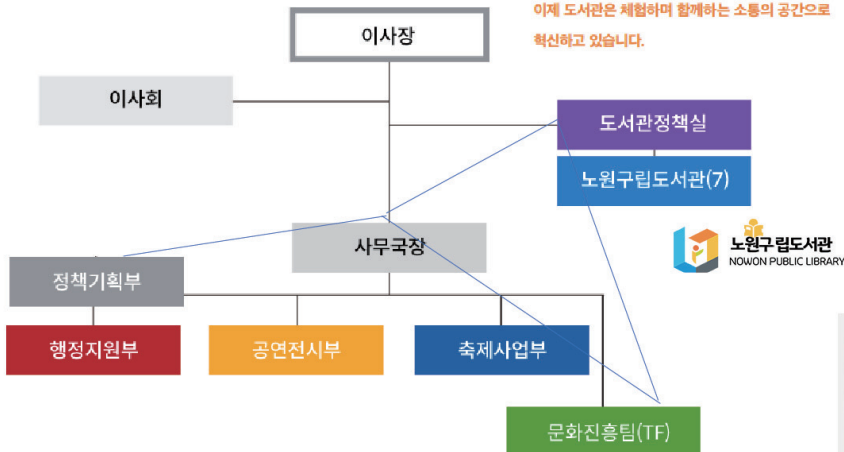
후원/기부

노원문화재단



where is '도서관'?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하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언제나 당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제 도서관은 체험하며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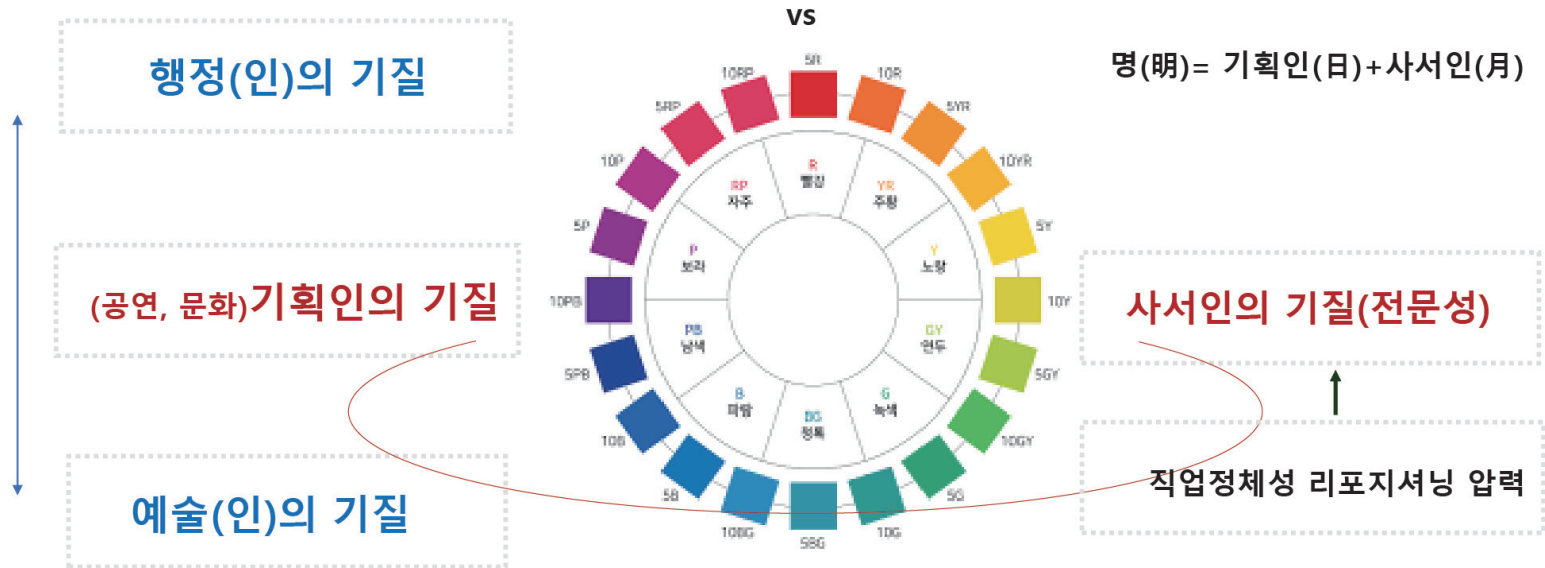


구인	회원가입	고객의 소리	제약사항	블로그	인스타그램
공연/전시					
축제/지역문화/교육					
대관					
열린공간					
후원/기부					
노원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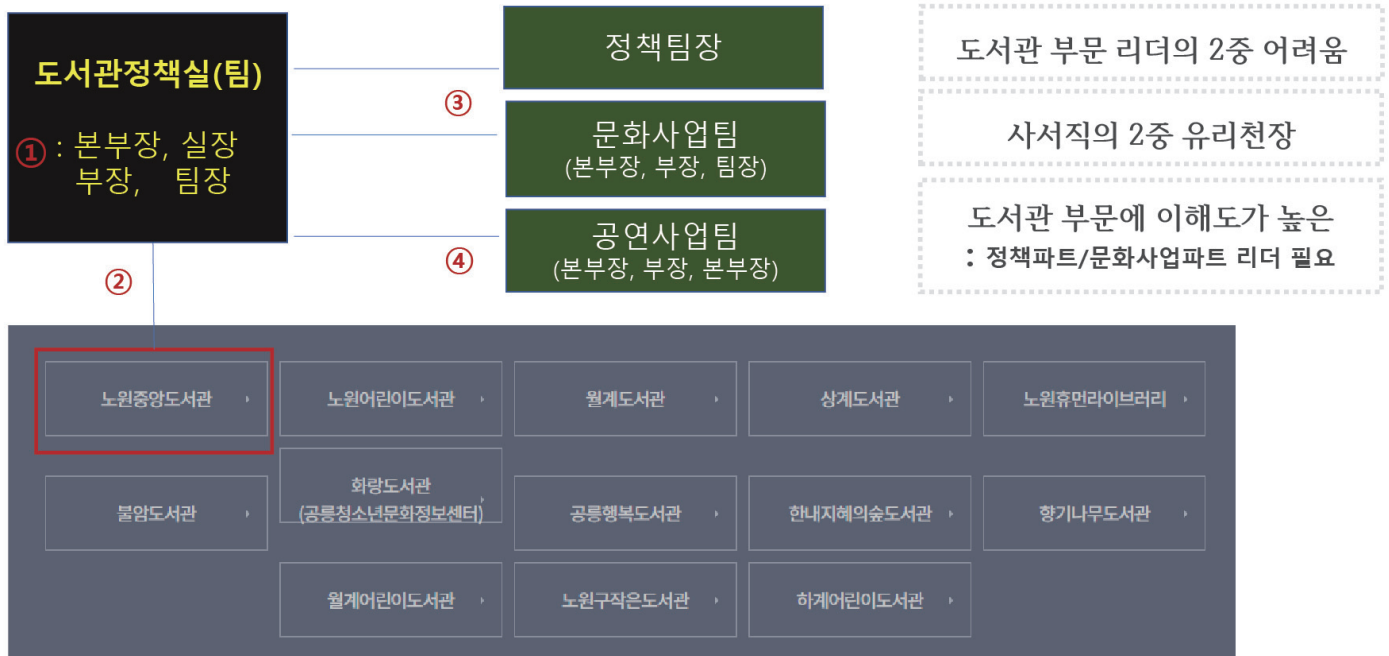
(장석류, 2022) 예술행정 부족 간 직업정체성 비교연구, 예술경영학회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2021년, 재단 10대 성과

2021년, 노원문화재단의 1년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을까요?
노원문화재단은 2021년 한 해 동안 구민들이 2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피로에서 문화예술로 일상을 회복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

PART 1.		
노원문화재단	미션 및 비전	010
	핵심과제와 추진사업	011
	조직도와 주요업무	012
	예산현황	014
	공간안내	015
	2021년, 재단 10대 성과	016
	시설운영	018
	사업성과	024
PART 2.		
노원구립도서관	노원구립도서관의 2021년	084
	미션 및 비전	086
	핵심과제와 추진사업	087
	예산현황	088
	시설운영	089
	사업성과	096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문화진흥법의 토대

- 기초문화재단에서 합류 : 사업통합

(기질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부족’+ ‘사서 부족’ 직업정체성의 충돌

- (기초문화재단 소속) 사서 부족의 직업정체성 shift, repositioning 압력
- 기초문화재단 사서 부족의 2중 유리천장 존재 : 재단 대표, 이사회 구성

‘(문화예술 기획인+사서 부족의 조직 내 ‘거버넌스 조직문화’ 필요

: 중간 리더군의 ‘상호 이해역량’과 협업 역량 중요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 「두 번은 없다(Nic dwa razy)」 부분

감사합니다.

예술경영·행정 분야 연구자(Ph.D)겸 교수자

장석류